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8. 1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8/7~8/11)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7월 비농업부문 고용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속 하락 출발 후 수급상 결제수요 유입 등에 낙폭 다소 제한. 이어 연준 이사의 추가 긴축 필요성 언급으로 경계감 강화된 가운데 중국 7월 수출입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에 동조화되며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무디스의 미 중소은행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위험회피 강화되며 상승 흐름 이어졌으나 수급상 네고물량 유입과 위안화 약세폭 축소 등에 보합
- 후반, 미 7월 CPI 상승폭 확대 예상 속 수급에 따른 좁은 레인지 흐름 이어지며 소폭 상승. 이어 주 후반, 지역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과 미 장기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강달러, 중국 부동산 부채 리스크 확대 등에 1,320원대 진입하며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 국채금리가 수급 측면의 장기채 입찰 부진에 이어 최근 발표된 PPI 상승 전환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축소 등이 위험선호를 약화시키면서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전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미 신용등급 강등, 중소은행 등급 강등 등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최근 다시 1,330원대 진입에 따른 외환당국의 불편한 가격대에 대한 미 세조정 강화 가능성과 고점인식 수출 관련 달러 매도 강화 등이 1,340원대 진입 제한에 주요하게 작용할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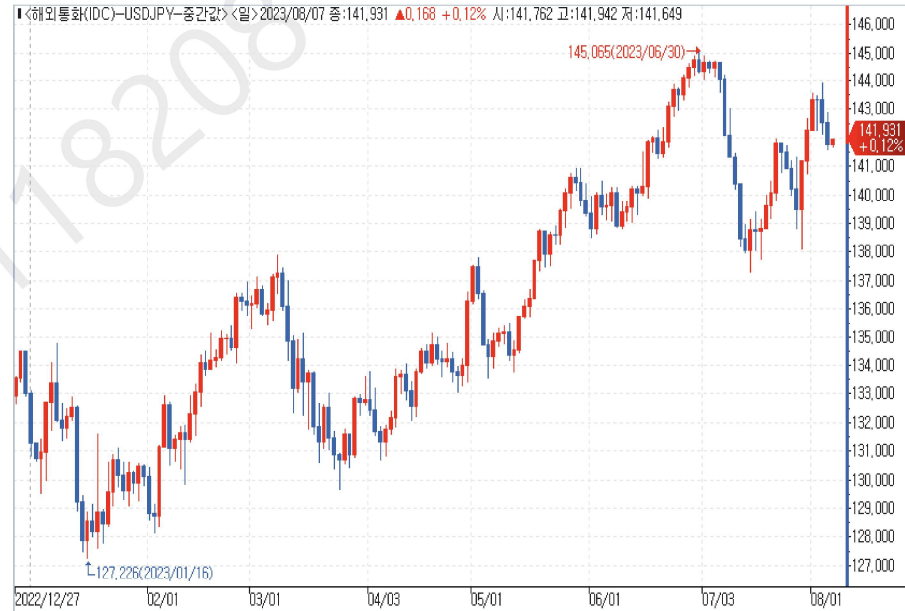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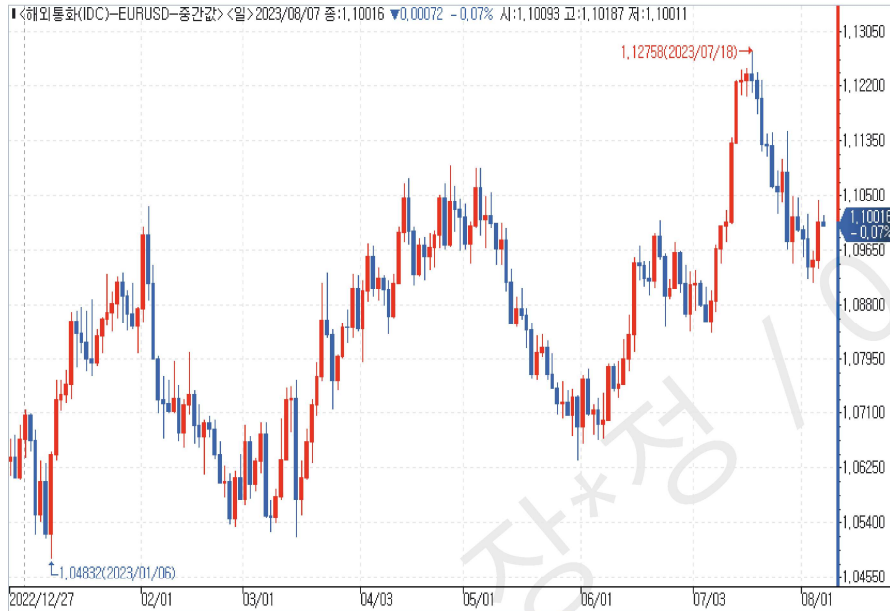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6.6	1,325.0	1,298.7	1,324.9	+18.3

## 예상거래범위

1,310원 ~ 1,335원



# 엔·유로화 동향 (8/7~8/11)



## 유로화 동향

- 주초, 미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 강화된 가운데 유로존 경제 주요국인 독일 6월 산업생산 -1.5%로 예상치 큰 폭 하회하는 등 경제지표 부진한 흐름 이어지면서 유로화 소폭 약세. 이어 미 중소은행 건전성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심리 강화 속 유로화 큰 폭의 약세 시현
- 중반 들어, 유로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으로 유로존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며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미 근원CPI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도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자극하며 소폭 강세. 이어 주 후반, 독일 무역수지, 영국 GDP 및 산업생산 지표 등이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음에도 미 PPI 상승세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반영되며 약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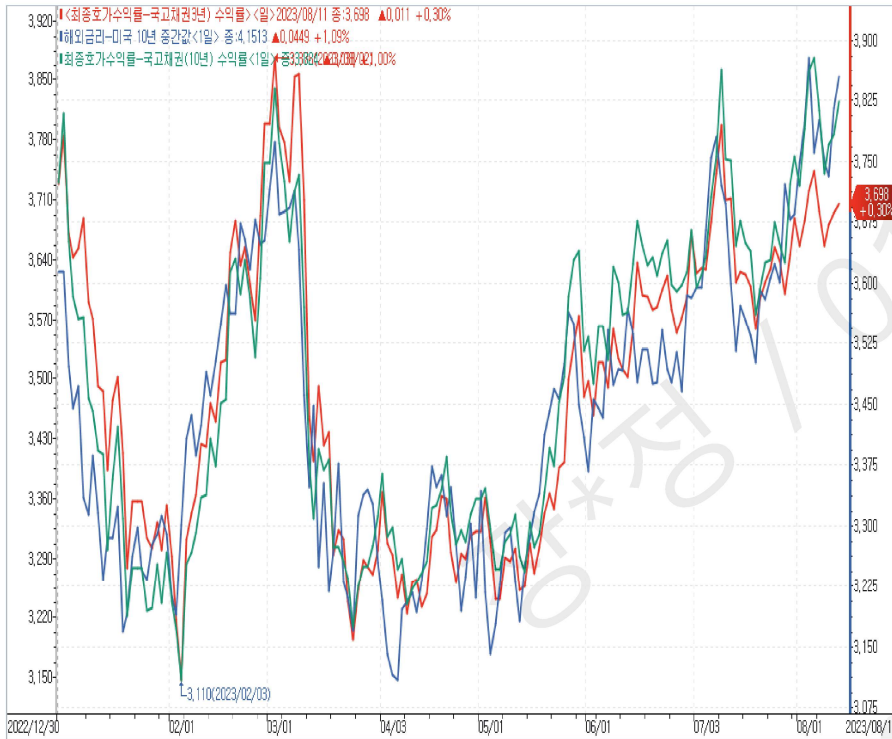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09	1.1065	1.0929	1.0947	-0.0062

##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 영향 등에 따른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 지속되는 가운데 엔캐리 수요 증가하면서 엔화 약세 출발. 이어 일본 6월 실질 임금 연속 하락세에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무디스 미 중소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하며 엔화 약세 다소 제한
- 후반 들어, 일본 7월 PPI 상승폭 둔화되는 등 여전히 낮은 물가 지속됨에 따라 BOJ의 금융완화정책 고수 우려에 약세. 이어 주 후반 달러당 144엔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엔화 약세 지속되자 일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높아진 측면이 엔화 약세 다소 제한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1.8	145.0	141.5	144.9	+3.1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7~8/1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7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 밑돌면서 추가 긴축 부담 낮춤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이를 반영 하락 출발. 이어 중국발 부동산 불안 경계감과 경상계정 흑자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반영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된 양상
- 중반 들어,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후 후반 들어, 미국 7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강화로 상승 추세 이어지며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방향성 결정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반영된 가운데 주 후반, 미국 7월 CPI가 기저효과를 반영하며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으나,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9월 등결 가능성 기대 확대 등으로 하방 압력 높아진 모습. 하지만 수급상 30년을 입찰 부진 소식 등이 반영되며 상승 흐름 반전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거시경제 모멘텀 요인 부재 속에 2차 전지업종 약세와 기관의 대량 매도 확대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중국 수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속에 무디스의 지역은행 신용 등급 하향에 의한 미국 중소 은행 불안감 확대에 하락 추세 지속 시현
- 중반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동반 매수 및 전일 무디스발 중소은행 신용 등급 하향 영향에서 벗어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7월 CPI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소폭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7월 미국 CPI가 상승 전환했음에도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연준의 9월 등결 가능성 반영 등 시장 안도감 강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성 매도 강화로 하락 재전환 속에 마감